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연계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일시 | 2019. 11. 19(화) 14:00

장소 | 하자센터 별관 4층 하하허허홀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일 시: 2019.11.19.(화), 14:00~17:00
- 장 소: 서울 하자센터 별관 4층 하하하하홀
- 주 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오프닝] 사회: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5-14:10	[개회사]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세션〉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 참여 현실 좌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10-14:20	[발표 1]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15:10	[청소년 패널토의] 황채영 2019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성윤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1기 연구원 정다소 충원고등학교 학생 허경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15:10~15:20	휴 식
〈2세션〉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좌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5:20~15:40	[발표 2]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5:50	[발표 3]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15:50~16:30	[토 론]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하태호 상록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김재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담당 유금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16:30~16: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 회

목 차

○ 1 세션_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 참여 현실 1

[발표 1]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 3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패널토의]

황채영 2019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 15

성윤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1기 연구원 / 22

정다소 충원고등학교 학생 / 25

허경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 27

○ 2 세션_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 방향 33

[발표 2]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 35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3]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 / 55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토 론]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 65

하태호 상록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 66

김재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담당 / 70

유금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 74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 76

1 세션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청소년 참여 현실

발표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패널토의 **황채영** 2019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성윤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1기 연구원
정다소 충원고등학교 학생
허경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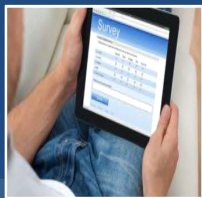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11.19.
Presented by 최정원

1

I. 실태조사의 개요

온라인 설문(2019년 10월)



일반 청소년(N=1,000)



- 전국 9세-24세
-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pm 3.1\%$ 포인트
- 9세-12세(N=214)
- 13세-18세(N=337)
- 19세-24세(N=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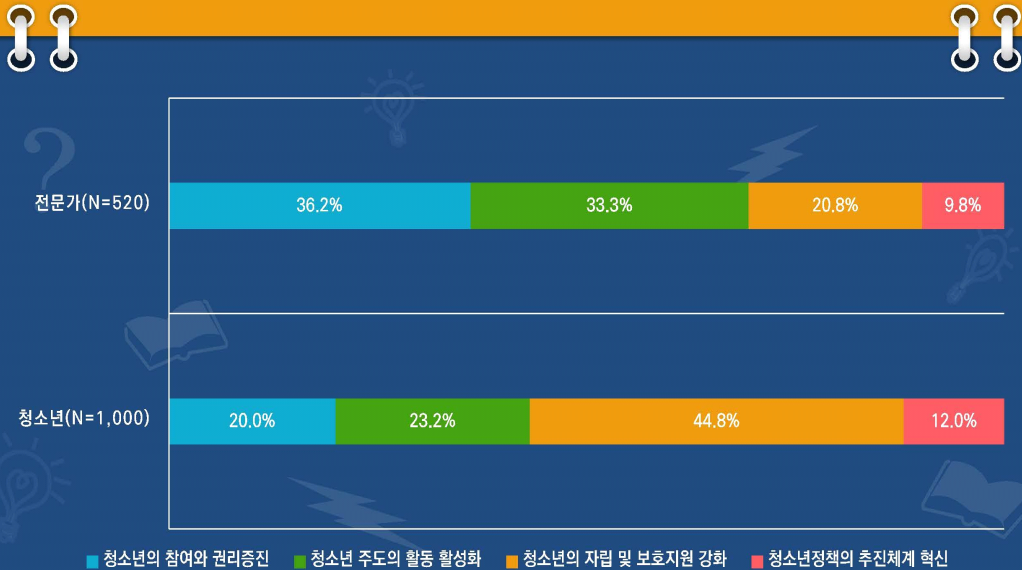
청소년 전문가(N=520)



- 대학 교수(N=54)
- 연구원(N=74)
- 청소년 지도자(N=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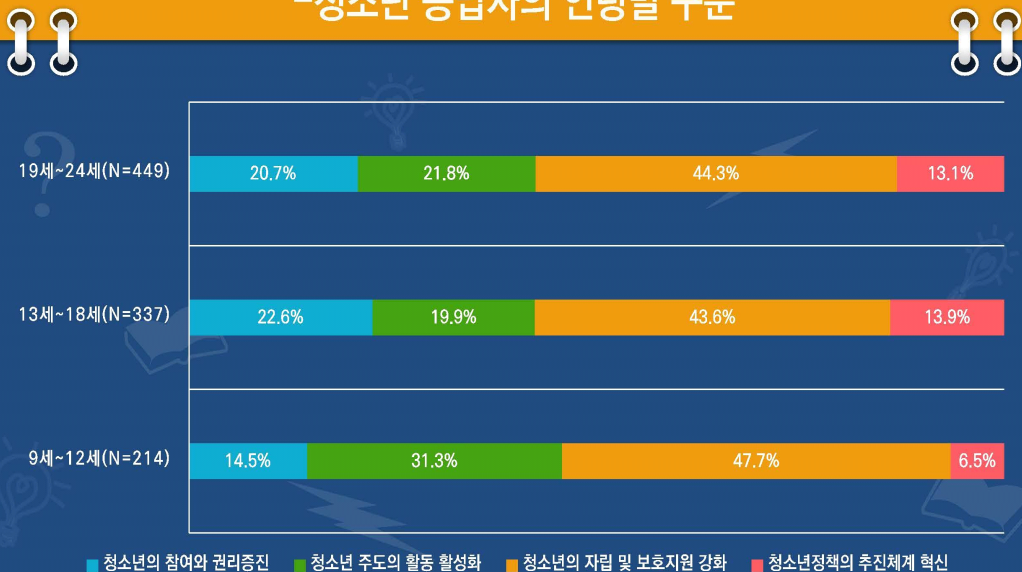
2

II-1. 청소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목표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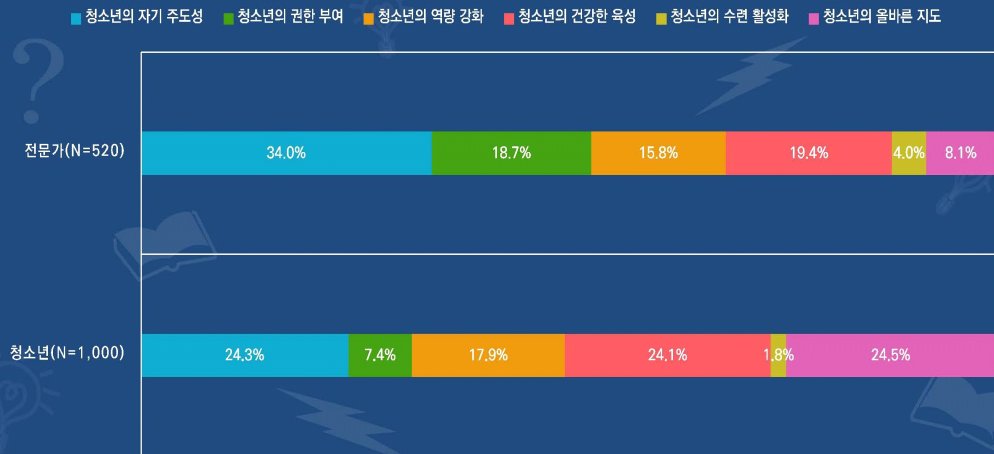
3

II-1. 청소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 목표 1순위?(계속) -청소년 응답자의 연령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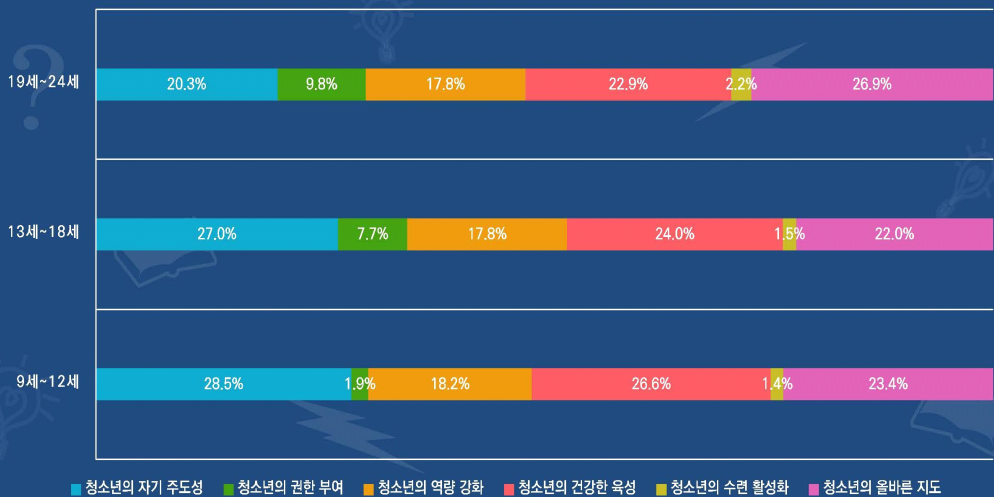
4

II-2.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필요한 개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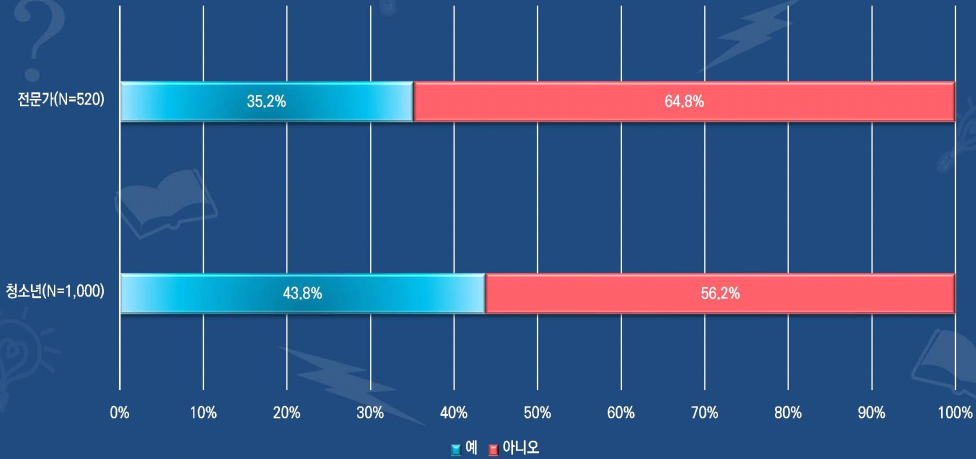
II-2.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필요한 개념?(계속)



6

III. 참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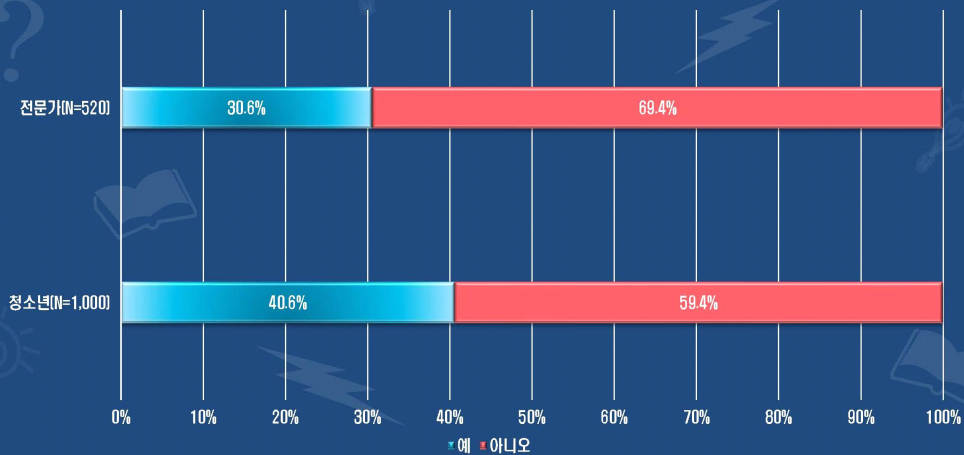
1. 청소년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지?



7

III. 참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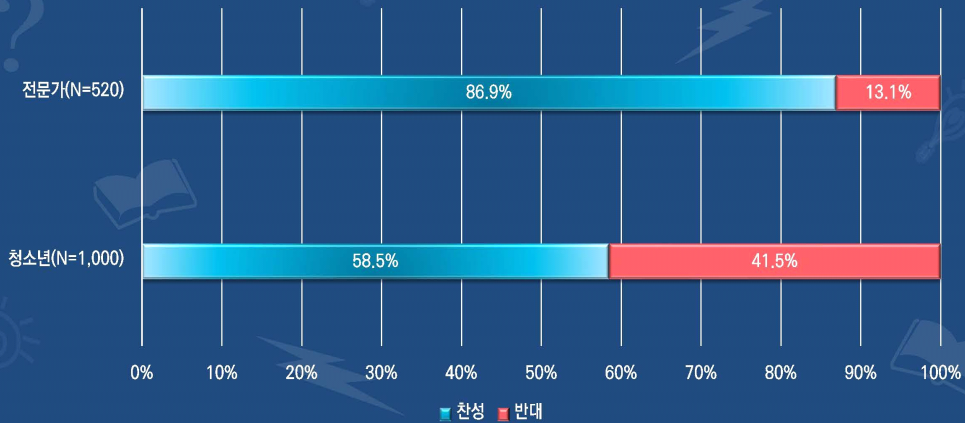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8

III. 참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계속)

3.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권 인정 연령의 하향?



9

III. 참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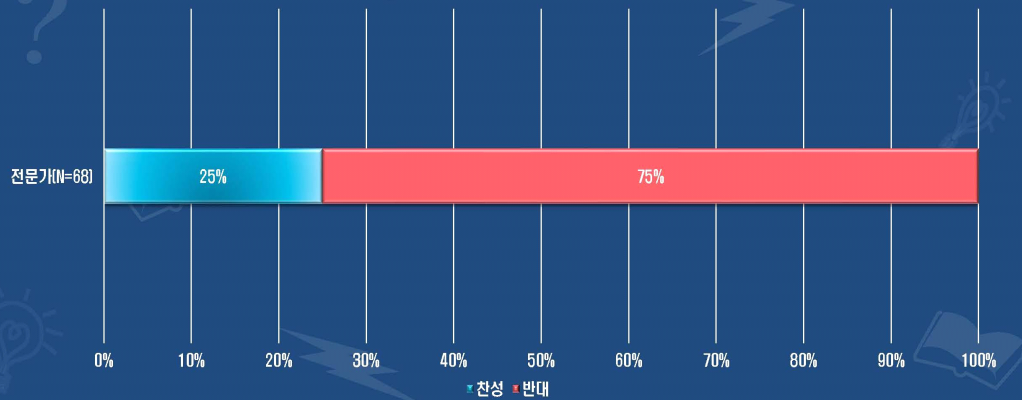
4. 선거권 인정 하한 연령은?(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기준, 평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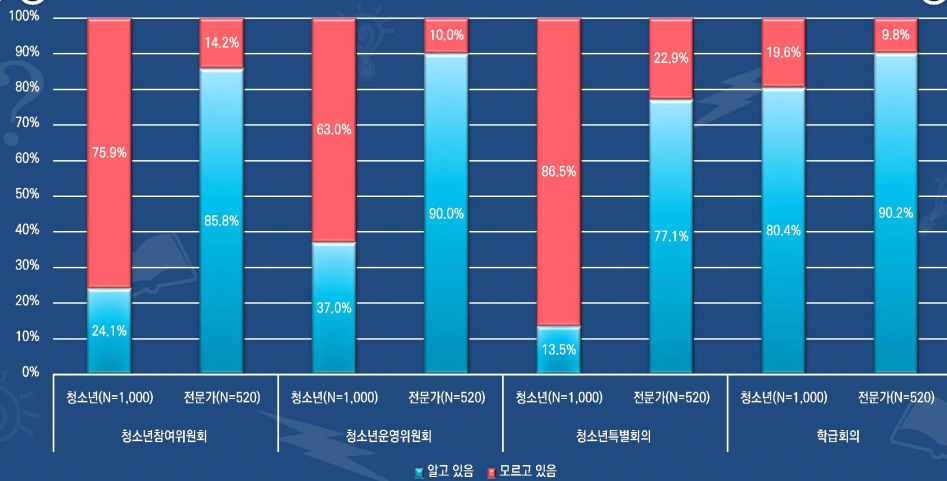
III. 참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계속)

5. 교육감 선거에 한해 만 16세 이상?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인 전문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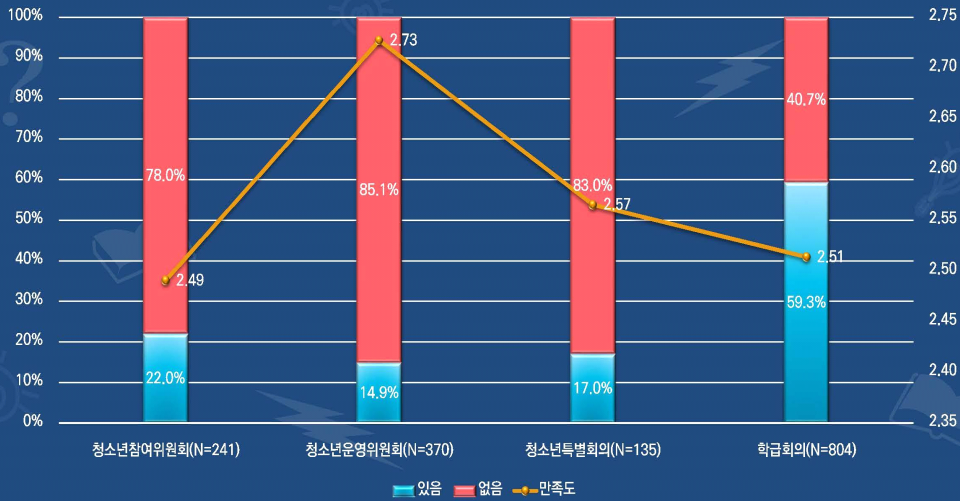
11

IV. 참여 기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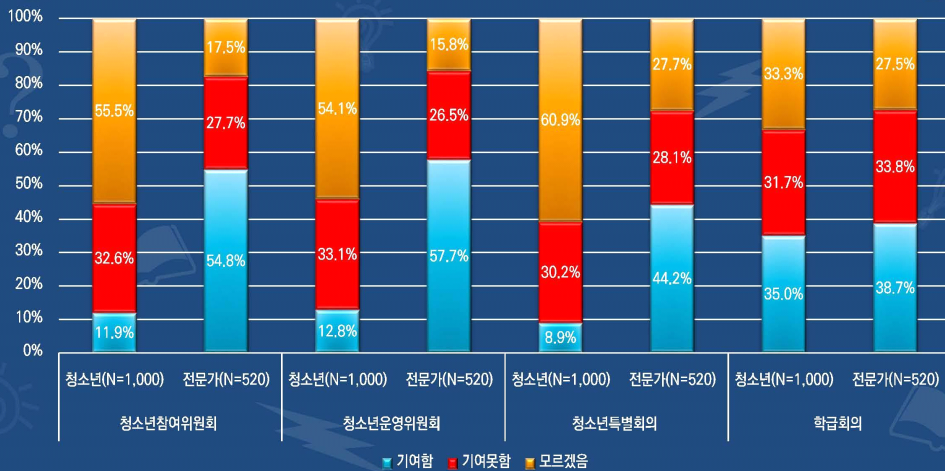
12

IV. 참여 기구: 참여 경험 및 만족도(인지도가 있는 청소년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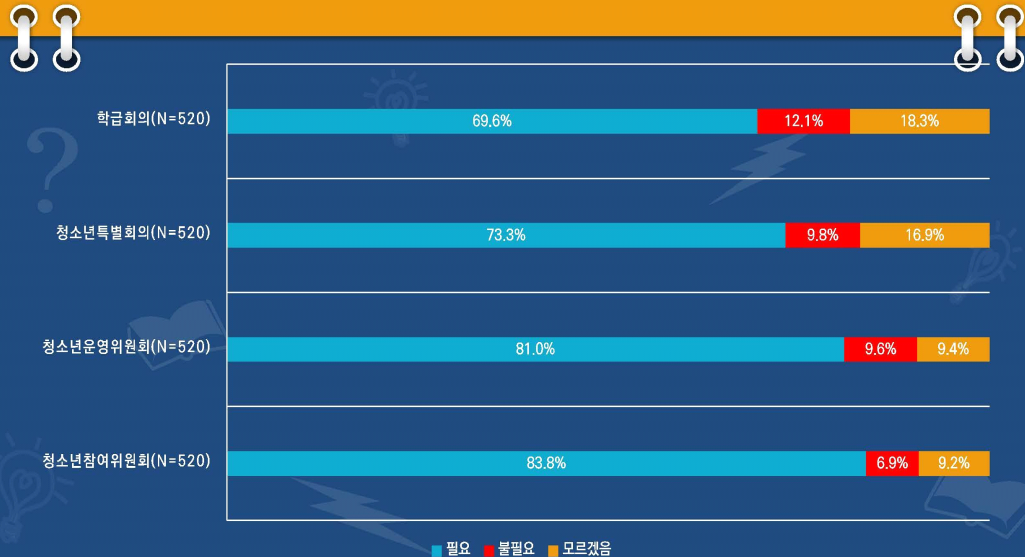
13

IV. 참여 기구: 청소년의 자치권 실현에 대한 참여 기구의 기여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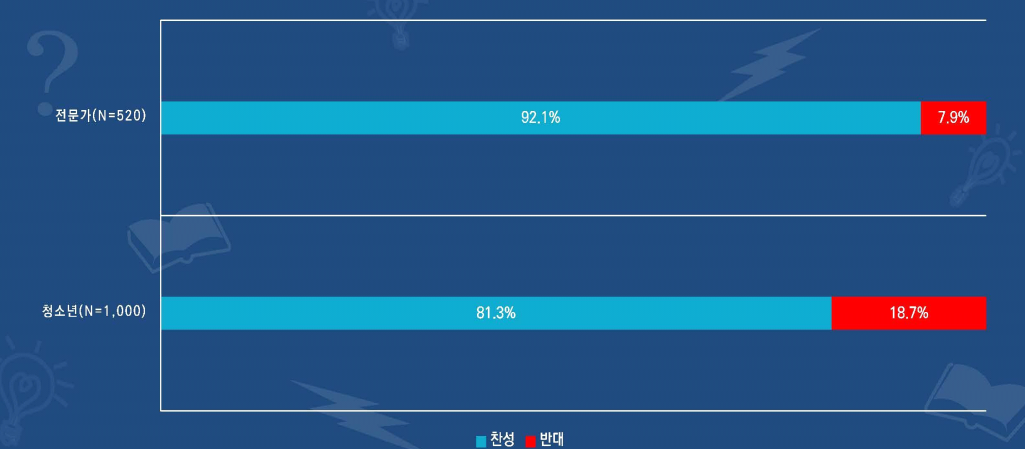
IV. 참여 기구: 확대 필요성? (전문가 대상)



15

V. 온라인 참여 포털: 필요성?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포털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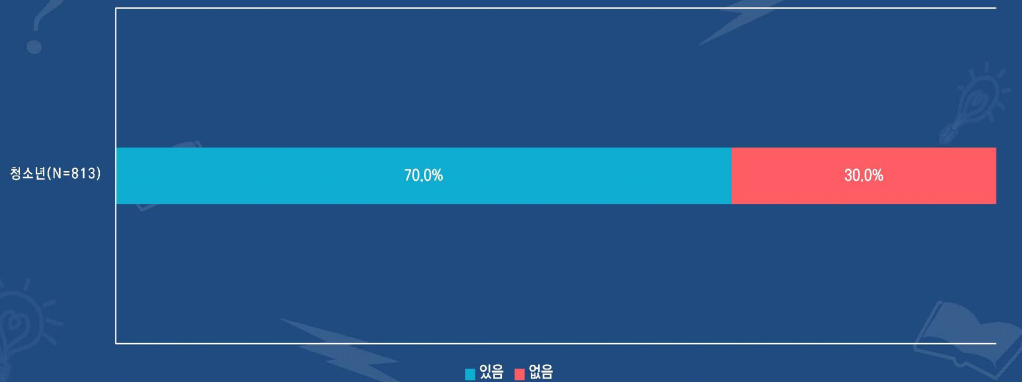


16

V. 온라인 참여 포털: 적극적 참여 의향? (참여 포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청소년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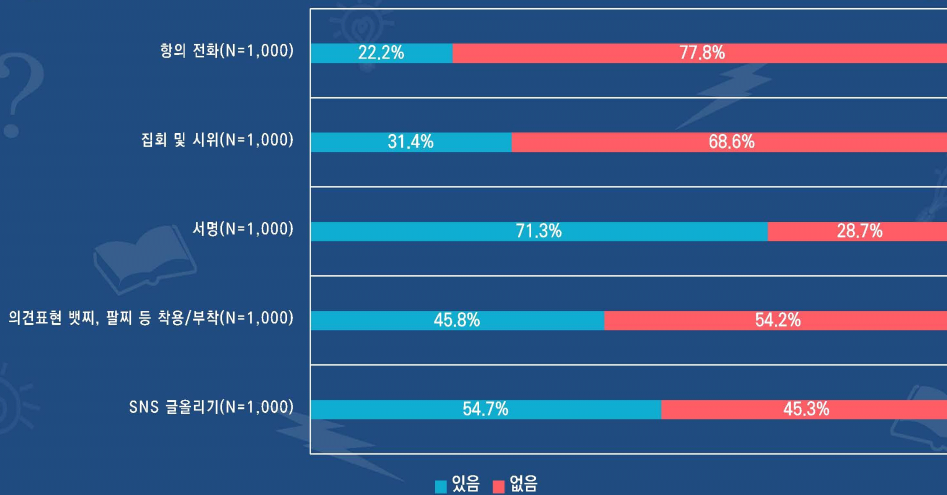


온라인 참여 포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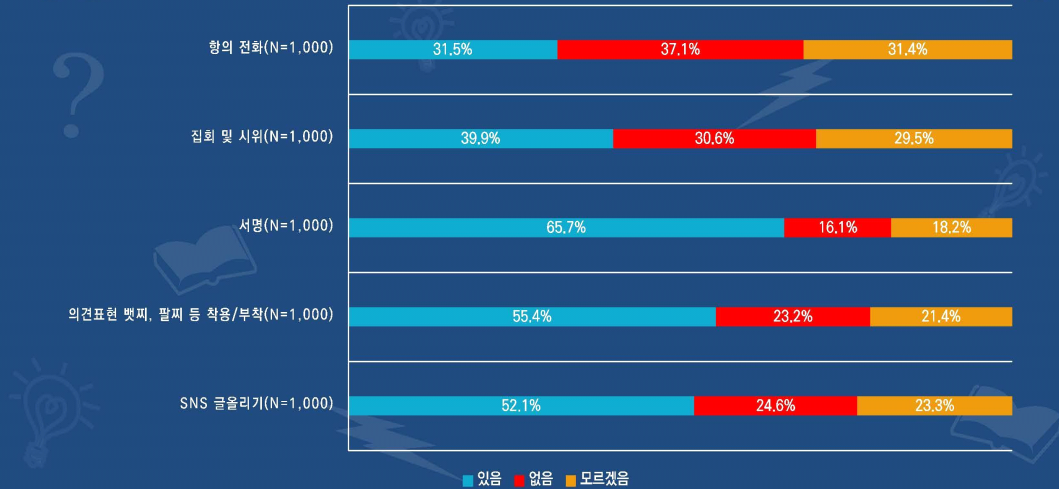
17

VI.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매체별 참여 경험 (청소년 응답자 기준)



18

VI.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매체별 향후 참여 의향 (청소년 응답자 기준)



◆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패널토의

황 채 영 2019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성 윤 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1기 연구원
정 다 소 충원고등학교 학생
허 경 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 -

황 채 영 2019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중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이라는 목표와 올해 ‘2019 다시 청소년이다’의 추진과제 중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 주도성 강화’라는 과제가 있다. 청소년 참여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문제점 진단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세 선거권 제한.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 만 19세는 한국이 유일하며, 타국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병역법상 병역 의무 부과 연령, 공무원 임용 시험 지원 가능 연령, 근로기준법상 유해 사업 가능 연령, 보호자 동의 없이 결혼 가능 연령은 모두 만 18세이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만 18세에게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정치권 확립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과연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34개 회원국가의 선거권 연령 현황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년8월 기준)

연령	구분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18세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는 선거권 연령 16세 •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는 선거권 연령 16세 • 일본의 선거권 연령 하향(20세→18세): 2015년 6월 개정
19세	대한민국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 경험

청소년참여기구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항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하여 알고 있음은 13.5%,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음은 24.1%,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음은 37.0%의 비율을 보인다.

청소년참여기구 모두 절반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참여 경험 있음 17.0%,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참여 경험 있음 22.0%,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참여 경험 있음 14.9%의 비율을 보인다.¹⁾

이는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수가 굉장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 환경의 한계점.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일반고 학생은 12시간 1분을 학교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

에서 보내고 있다.²⁾

청소년들의 평일 방과 후 주요 활동에서 공부와 관련된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원/과외가 31.8%, 자율학습이 10.8%, 방과후 학교가 9.5%, 공부·학습이 7.4%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청소년 시설 이용은 0.8%에 그친다.³⁾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방과 후에는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느라 다른 것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과 수도권지역 거주 청소년을 비교해보면,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거리가 수도권지역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며 이동 수단이 한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부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거리 시간은 왕복 6시간 이상이며, 이동 수단은 버스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규모가 큰 활동과 행사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지역에서 진행되기에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힘들고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지방 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참여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과 기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참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청소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은 예 43.8%, 전문가는 예 35.2%의 비율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은 예 40.6%, 전문가는 30.6%의 비율을 보였다.⁴⁾

위 두 질문 결과에 따라 청소년 참여 현실에 대하여 청소년과 전문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 현실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선제안

이러한 우리 사회 참여현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참정권 실현 및 모의선거 확대 실시

2017년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중·고등학생)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함. 2013년 80.1%, 2014년 83.3%, 2015년 82.8%,

2) 이수나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 초·중·고교 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2015.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

2016년 83.8%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⁵⁾

이 통계의 추세를 보아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내년 2020년 04월 15일에 진행될 국회의원 총선거에 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을지, 현재 선거연령 하향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각 17개 시·도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 18세 선거권 실현 캠페인 및 청소년 모의선거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5) 통계청. 청소년 통계. 2018.

하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모의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온·오프라인 모의선거를 17개 시·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의 선거를 통해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해 선거 과정을 익히며 정치관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참정권이 실현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방안 개선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여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하여 필요 73.3%,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하여 필요 83.8%,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필요 81.0%의 비율을 보인다.⁶⁾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들이 청소년참여기구 확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참여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방안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안에서의 단합이 중요하다.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연합 활동은 필수이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구라는 점에서 청소년참여기구는 직접 자신들이 기획하여 다양한 토론회, 캠페인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주최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많은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시 처음 참여기구를 접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한다. 처음 청소년참여기구를 접한 청소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렵고 지루하여 재미없는 활동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토의토론기법과 정책 발굴 교육을 통해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교육방식은 단순한 강의식이 아닌 토론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낮은 인지도와 참여 경험의 원인은 홍보방안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홍보방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방안에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참여기구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설명해주지 않고 게시판에 붙여놓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

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통한 홍보를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및 SNS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이벤트나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하여 청소년의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 환경 개선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와 청소년 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종류와 장소는 한정적이다. 학교와 청소년 기관이 협력한다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과 수도권지역 거주 청소년의 공평성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각 17개시·도 지역 중 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최하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 대규모의 활동과 행사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지방지역 청소년 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방지역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어야 한다.

온라인 참여 포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은 찬성 81.3%, 전문가는 찬성 92.1%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온라인 참여 포털에 적극적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은 있음 70.0%의 비율을 나타냈다.⁷⁾

이는 청소년과 전문가 모두 온라인 참여 포털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참여포털의 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지방지역 거주 청소년 등 참여가 힘든 청소년이나 관심이 없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 청소년참여포털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나눔 정책제안 이벤트가 진행됐었지만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벤트 기간을 연기하고 이벤트 경품 선정의 기준을 바꾸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참여포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포털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매체(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등)에 콘텐츠(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방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년에 1번이 아닌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

넷째, 청소년 사회 참여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의 94.7%는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중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이 있는데,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의 중점과제 중 1순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참여 확대 36.7%,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33.5%,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9.8%로 청소년 참여 확대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⁹⁾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당연직 비상임 청소년이사 2명 선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등과 같이 이처럼 청소년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이나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청소년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에는 만 18세 선거권 제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 경험, 청소년의 참여 환경의 한계점, 참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실현 및 모의선거 확대 실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및 홍보방안 개선, 청소년의 참여 환경 개선, 청소년 사회 참여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의 문제점은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바란다.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17.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참여 현실. 2019.

사랑과 눈물의 연구법

성 윤 서 하자센터 10대 연구소 1기 연구원

“왜?”, 10대연구소

하자센터 청소년주도 프로그램 ‘10대연구소’는 10대가 10대 당사자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는 약 1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회와 나를 연결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2018년 10대연구소의 1기 연구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10대연구소를 했다. 학교 안에 있을 때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과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들었다. 학교 안 청소년이 많다보니 학교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학교에서 있었던 불편한 일들, 소외감, 회의감, 분노를 이야기하며 학교가 언제쯤 변할까 하는 생각에 쓸쓸해졌다.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거대한 콘크리트처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셀 수 없이 나왔다. 청소년이다. 사는 내내 엄청난 입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며 착취와 차별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들. 순응과 무기력에 잠식되어 버티는 삶이 익숙한 사람들. 그게 청소년의 현 주소였다. 더 이상 청소년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생각을 수능 뒤로 미룬다. 자연스레 드는 질문, “왜?”와 싸우지 않도록, 모순을 외면하고 주위의 기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방법 중 하나였다.

연구의 첫 번째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묻어둔 과거의 먼지를 탈탈 털어 살피고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짚어본다. 내 생각, 정체성, 불안, 불만, 내가 속한 세계의 흐름까지. 나를 화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연구의 가닥이 잡힌다. 10대 여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시선과 혐오, 시험 때문에 죽고 살았던 경험들, 방치된 채 돌보지 못했던 우울, 부모의 폭력과 학원과 서열과 성 정체성과 같은 고민들. 은근히 신경 쓰였던 미묘한 불편함은 연구의 기폭제가 된다. 어? 나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거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이야기를 말 하며 울다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다시 곱씹어보았다. “왜 나는 대학에 가야하는가?”, “왜 공부해야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모두가 한번쯤은 해본 생각일 것이다. 나는 그러한 질문들을 묻어두고 싶지 않았고 나의 연구가닥은 입시와 자기착취로 잡혔다. 여름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연구 막바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점검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현재 내 연구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떤가? 나의 상황은 여태껏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내 이야기를 글로 옮기고 모두의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을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소처럼 말하다가 후반부엔 엉엉 흐느끼며 울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울고 나니 속이 참 후련했다. 지금껏 너무나 울고 싶었는데 크게 울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이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 상처를 돌보고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 높여 말한다. 청소년을 울 기회를 가져야한다. 시험공부 부담감에, 주위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의 경험을 말하고 부당함을 따지고 사회의 목소리를 내며 벽차올라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함께하는 과정이다.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고쳐나가는 과정. 그게 사회가 할 일이 아닐까.

생기부를 벗어난 시간들

조사와 분석, 해석을 통해 연구는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더 나아가고 싶은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더 그것들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시간이다. 10대 연구원들에게 10대연구소가 좋은 이유를 물으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10대연구소는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생기(담당판돌, 조력자)가 나를 감시하고 생기부에 일일이 적고 별점 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학교 안 청소년들은 늘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난 자유의 시간,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 시간. 그 시간들을 상상해보자.

얼마 전 기사 하나를 읽었다. 청소년 기후 결석 시위에 참석했다가 징계압박을 받은 청소년의 이야기였다. 결석시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5번 항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적극 확보 한다”고 되어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 모든 일의 첫 걸음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시간이 너무 없다. 사회 참여를 할 시간도 없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다. 골똥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듯이 아파도, 병에 걸렸을 때 자가 진단을 할 여유가 없다. 청소년의 숨통을 조여 오는 많은 것들은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하고,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좁은 생기부에서만 살지 않으려면 생기부를 벗어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청소년에게 자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진짜’ 자유 시간 말이다. 시시각각 압박을 받으며 갖는 자유시간은 말만 자유이지 실은 자유가 아니다. 앞일을 불안해하고 쉬어도 가시 방식에 얽힌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것인가? 되묻고 싶다, 정말 청소년에게 시간이 있나? 하루의 반을 학교에서, 나머지 반을 학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온전한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한다. 만약 청소년에게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 고찰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생겨난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분석하기에 이른다. 큰일을 만드는 한 발자국은 거기서 시작된다. 멈추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공부기계에서 벗어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미묘하고 은밀한 압박과 시선들을 역으로 꿰뚫어 보는 것. 스스로 그 경험을 의미화 하는 것. 10대 연구소의 연구는 거기서 시작 된다.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참여 현실_문제점 진단과 개선 제안

정 다 소 충원고등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청소년 대표 정다소입니다. 청소년을 대표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청소년 참여 기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직접 청소년 참여 기구에 참여해 본 결과, 청소년으로서의 사회 참여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는지 청소년 참여 기구의 참석률은 점점 저조해졌습니다. 이는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한 홍보 자체의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년 참여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청소년 참여기구가 아닌 교내의 동아리 활동에 접목시켜 발전시켜나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각 학교 내에서 동아리 형식으로 각 지역에 대한 정책 제안을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학교, 시, 도, 전국 단위로 발전시키고, 전국 대표들은 직접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전국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부담 없이 주고받을 것이며 직접 제안한 정책을 스스로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기사에는 잇을 만하면 입시 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의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왜 어른들은 남의 이

야기처럼 쉽게 내뱉는 걸까요? 입시 제도가 변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되려면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소년 감사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만을 비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앞서 제안한 전국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국회에 전달되기 전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정책을 비판하고 보완해나가며 더 나은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도 담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GO’ 하고 계십니까?

허 경 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은 대부분 자기계발서와 조금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에세이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성공하기 위한 101가지 방법, 성공을 위한 대화법,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등. 그런데 자기계발서가 여러분의 꿈을 찾아 주나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찾아 주나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스테디셀러는 어떤 분야일까요? 고전문학? 인문 사회과학? 소설? 아마도 입시 준비를 위한 문제집 코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시를 잘 치루고, in 서울 대학에 진학해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왔습니다. 이미 잘 닦여진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에 공포심을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Youth Changemaker, 실패보다 못한 중도 포기

‘청소년들이여, 망설이지 말고 Go’의 의미를 담고 있는 비영리 혁신교육단체 유쓰망고는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라는 커리큘럼으로 수년간 전국의 교사와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략 숫자로 추산해 본다면, 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을 접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시작한 팀 중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한 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생존한 팀이 매우 적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위해 학교 담장을 넘었다가 냉담한 시민들의 반응에 상처받고 활동을 중단하는 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기간이 겹쳐 활동 시기를 놓치는 팀, 프로젝트 관계기관에 연락을 했다 매몰차게 거절당해 상처받아 그만두는 등 중도에 포기하는 팀들의 이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에서 청소년의 대부분은 도전을 두려워 합니다. 모험하기를 미룹니다. 당장 코앞에 놓인 입시라는 상황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실패하면 곧 한 순간 패배한 인생으로 분류되

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도전과 모험'에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시민들의 반응, 청소년들의 두드림에 응답하지 않는 어른들, 곱지 않은 시선에도 끝까지 프로젝트를 실행한 친구들 있습니다. 관심사에서 시작해 작은 변화를 일어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미흡했는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했는지를 눈 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한 걸음

원주 중고등연합동아리 팔레트프로젝트

원주시 중 고등학교(38개교) 두발자유화를 목적으로 활동
학생다움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갖게 됨
'나의 머리카락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두발규제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하고,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두발 자유화를 이뤄내자고 다짐함

배움과 성장

학생인권에 관한 이슈는 늘 예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부모와 교사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욕구가 강한 만큼 결속력있고 지속성있게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실행한 친구들 뿐 아니라 함께 동참해 목소리를 내어준 친구들에게도 매우 강렬한 경험이 됐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과정 중 메시지 전달 뿐 아니라 메신저의 중요함도 깨닫게 되었는데, 학생인권에 무관심하거나 학생인권 보장을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부딪치게 되는 순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인권, 두발자유에 대해 심도있는 학습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습하고 더 깊은 배움이 일어났던 시간이었음.

이룰 수 없어 보이는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도 의미있었지만 실질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뭉쳐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불편한 문제에 관해 개선되도록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배움과 성장

사회 참여는 다양성을 알아가는 과정

안양 신성고등학교
ACTIVIST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등 사회 문제를 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회 주체로서 '행동하는 청소년'이 되기로 결심함
문제를 목도했을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일어나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성고 ACTIVIST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그 힘으로 캠페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큰 뿌듯함을 느꼈음.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였으나 응원해 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꼈음. 더불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무엇보다 직접 발로 뛰며 세월호 사건은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음. 캠페인 자체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우리가 함께하면 앞으로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으며, 추후에 진행할 여러 가지 캠페인과 활동의 동기이자 원동력이 되어 준 프로젝트였음.

두 번째 활동은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타 학교 학생들의 응원과 지지로 또한 번의 성장의 시간이었음. 캠페인에 동참한 일반인과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생각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 또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각보다 성숙한 사고를 하고 있는 또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음.

미약하나마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유를 더욱 확신하게 함.

시도하고 실패하며 배우는 세상 이야기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
이성

배움과 성장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됨. 캠페인을 할 때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걸 왜 해? 가서 공부나 해!"라고 하시기도 하고 한 여자분은 "이거 하면 진짜 바뀌는 거 맞아요? 안 생길 것 같은데"라고 하시며 비웃음도 받았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러 시도와 실패를 거치며 쓰레기통을 만들어 냈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시청의 태도 변화와 관공서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까지 이끌어냄. 우리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음. 또한, 청소년의 작은 행동이 어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 아닐까. 체인지메이커 활동은 세상을 만나는 것이며,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며 협동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또한 기를 수 있었음. 과연 학교 수업만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을까

이 성팀은 팀원 성이 모두 달라서,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보단 이성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사회를 움직이는 실천의 힘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문화재제자리찾기 청소년연대

배움과 성장

문화재는 단순히 유형의 유산이 아닌 우리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임. 우리의 문화재 환수 활동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는 '문화재 수호자'가 되고자 함.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타국에 있는 문화재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방관하고 성장의 길을 막는 것임을 느꼈고, 아직 반환받지 못한 문화재를 환수해 역사 왜곡 등 역사와 관련된 타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랐.

성남시청 앞에서 이순신 영정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할 때 몇몇 무관심한 시민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고도 하지 않는 모습. 활동 할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훈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됨. 이후에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눈에 잘 띄는 홍보 프린트물을 제작해 그냥 지나치려는 시민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하는 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문화재 환수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역사의 과거의 과오와 오류를 바로 잡는 것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극복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운동에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실천적인 작은 힘이 되고자 함.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진짜 배움

세종 한화해피프렌즈
알림마셀

알림마셀은 사회를 바꾸려면 먼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그 문제들을 찾으려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로 알림마셀을 팀명으로 정했습니다.

- ▲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길터주기 운동, 시민의식 개선, 소방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면의 조사 중
- ▲ 팀원 12명이 세 개 조로 나뉘어 소방관 인터뷰, 시민 공감 캠페인, 골든타임 준수에 관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 중
- ▲ 시민 공감 캠페인과 소방관 인터뷰 등 실제 해결책 도출에 필요한 과정들을 해 나가고 있음.

범죄나 의료사고 현장, 그 사건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수임 시민들의 경우에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골든타임을 지키 위한 길터주기 운동을 다시금 되새기고 활성화하고자 함.

위 사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유쓰망고 주최 <망고포럼 : 사회의 문을 두드리다. 행동하는 10대들의 이야기>에 참여한 10팀 중 5팀의 사례로 학교 밖을 나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펼친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은 끝까지 이 일을 했을까요?

청소년들의 성찰 내용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이런 거 해서 뭐하냐?” “무심하고 냉담한 시민들의 반응” 등에 좌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뭉치니 변화가 왔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알려야겠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약하나마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겠다 등의 다짐과 의지를 보입니다. 더불어, 학교 수업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다는 고백도 합니다.

Youth Voice,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에 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절대 알려 주지 않는, 진정한 시민으로써 성장해 나갈 채비도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귀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냉랭한 시선을 보내거나 공부나 하라고 잔소리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래와 같은 배움을 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활동을 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의 신분이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써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배움을 위한 권리 선언

하나. 우리는 삶의 주체로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움을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배움에 대해 탐구할 시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위해 적합한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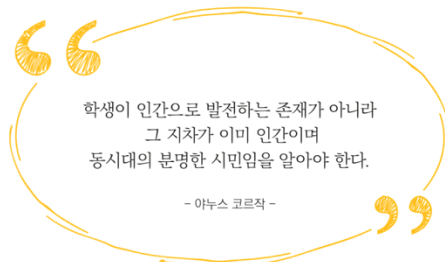
하나. 우리는 어른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의무가 있다.

2019년 8월 9일

〈망고포럼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신들의 권리 선언〉

청소년 여러분, 어떤 사회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사회와 연결된 배움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유쓰망고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관심과 흥미, 재미를 느끼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달려나가’는 시민으로 문제가 발생한 어딘가에서, 바뀌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2 세션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발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토론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하태호 상록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김재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담당

유금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방향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2019.11.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TENTS

- 01 서론
- 02 청소년 참여 실태 및 시사점
- 03 청소년 참여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01. 서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서론

“啃老族”

물 간(kěn) 늙을 노(lǎo) 겨레 족(zòu)

중국 천진 사회과학원 대표단 본원 방문 시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2019. 11. 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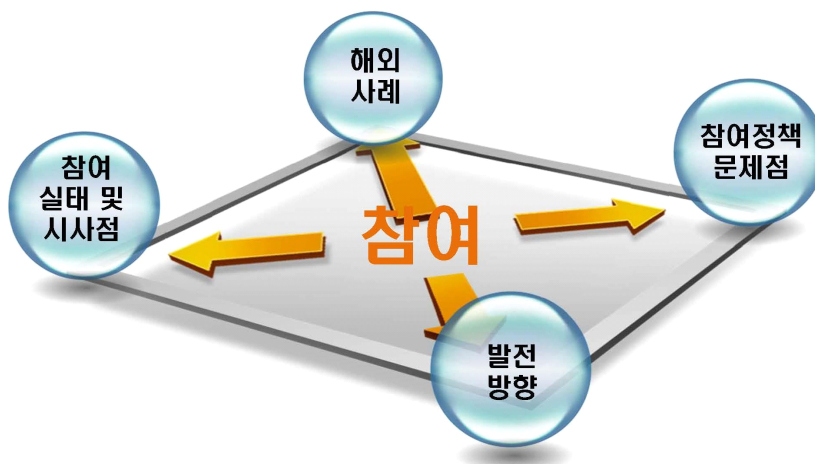
01. 서론

“젊은 시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와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김도현 청소년 토론자 질의응답 중에(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11. 1)



0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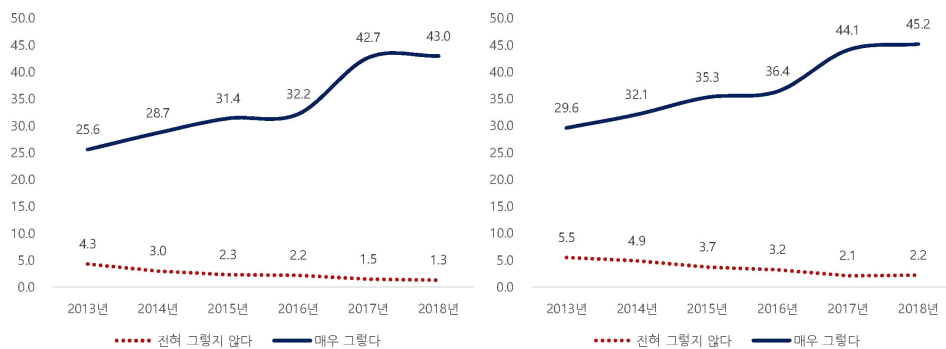
02. 청소년 참여 실태 및 시사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참여 실태 - 가정

- 청소년의 참여 실태를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최근 6년(2013-2018) 간의 변화 추세를 분석
-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자신의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종종 받고 있다는 응답 증가

〈부모님 집안 중요한 문제 결정 종종 응답비율(%), 2013-2018〉 〈부모님 공부시간 및 방법 종종 응답비율(%), 2013-201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9,060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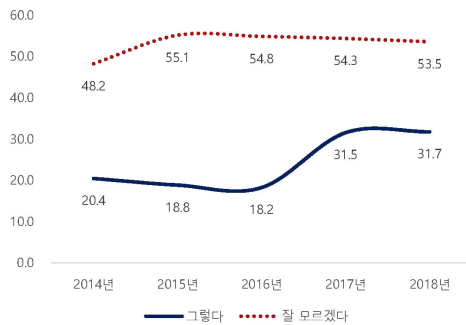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청소년 참여 실태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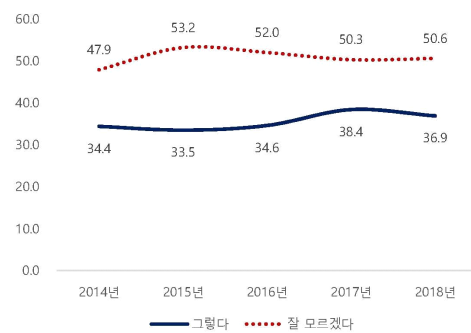
-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한다는 응답은 최근 증가, 학생회 의견 존중 큰 변동 없이 유지

- 이 질문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학생회 참여 문제가 관심 사항이 아닌 상태가 지속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2014-2018년〉



〈교사나 교장 학생회 의견 존중(%), 2014-2018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9,060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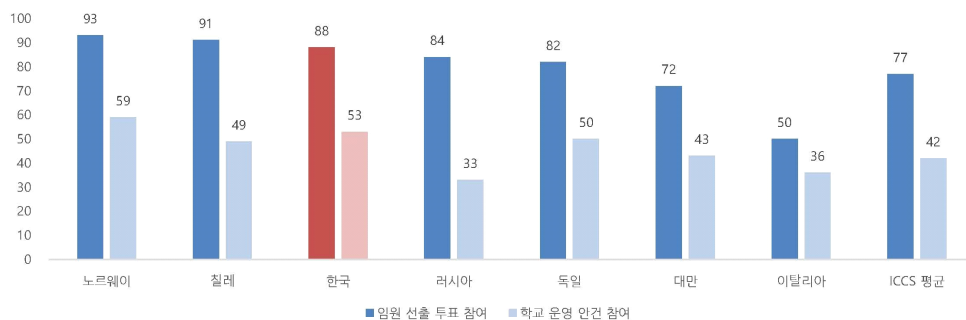
KIP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청소년 참여 실태 - 학교

- ICCS 2016에서 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나 학교 운영에 관한 안전 결의에 참여하는 수준은 높게 나타남.

- 동일한 ICCS 2009과 비교해 각각 11%p, 20%p나 증가해 최근 들어 학생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확대됨.

〈학생대표, 학생회 임원선출 투표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안전 결의 참여비율(%), ICC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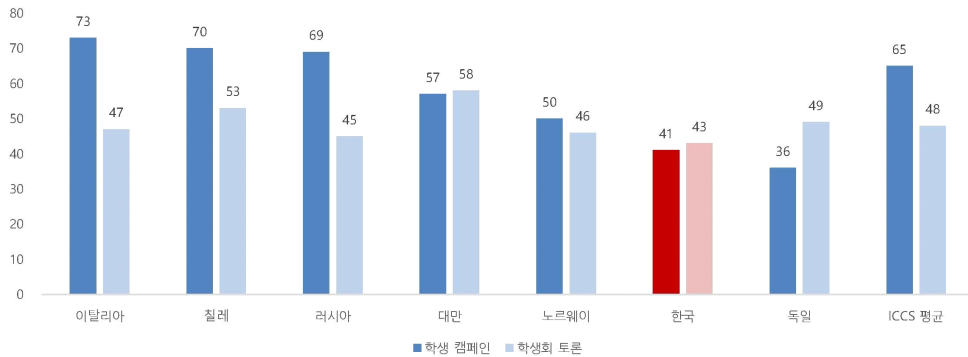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 한국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 24개국 94,000 여명 대상 조사

KIP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청소년 참여 실태 - 학교

-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제도적인 참여는 늘었으나 실제 참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낮음.
- 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와 자신이 동의하는 이슈에 대한 캠페인 참여 의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및 동의하는 이슈에 대한 학생 캠페인 참여 의사 비율(%), ICC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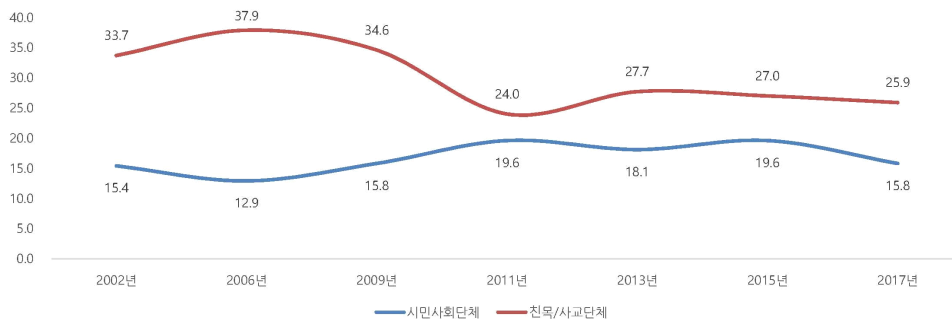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 한국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 24개국 94,000 여명 대상 조사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 청소년들의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 비율은 2006년 37.9%로 높았으나 10%p 이상 감소한 후 20% 중반 유지
-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2011년 19.6%까지 올랐다가 최근 15.8%로 낮아짐.

〈청소년(13-19세)들의 친목/사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율 변화추이(%), 2002-2017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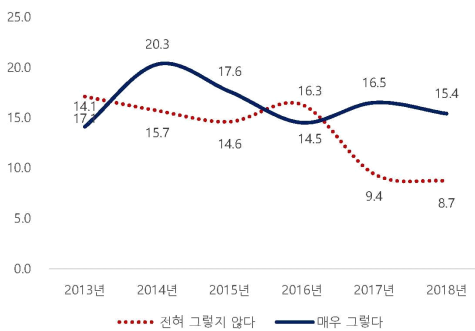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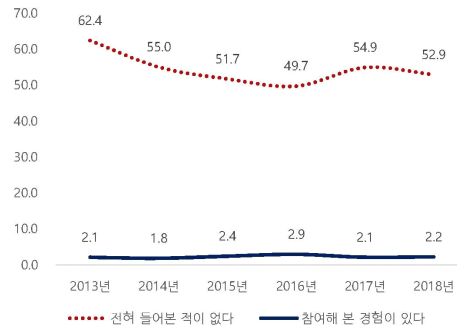
- 청소년들에게 우리사회의 권리 보장 수준을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최근 들어 정체

- 지역사회 참여기구에 대해 여전히 절반정도가 모르고 실제 참여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머물러 있음.

〈우리사회 청소년 권리 보장 수준 의견(%), 2013-20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참여 여부(%), 2013-2018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전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9,060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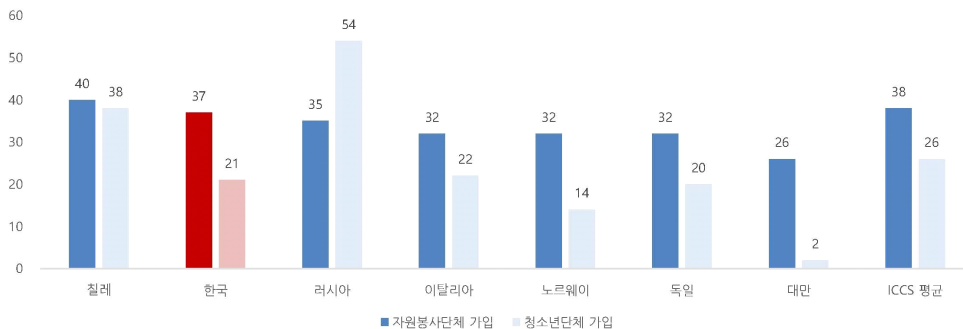
N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 ICCS 2016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경험 비율을 물어 본 결과, 한국은 여전히 낮은 국가로 분류

- ICCS 2009에 비해 2배 가량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나 자원봉사단체나 청소년단체 가입 등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

〈학교 밖 시민참여 경험비율 주요 국가 비교(%), ICCS 2016〉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CCS). 한국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 24개국 94,000여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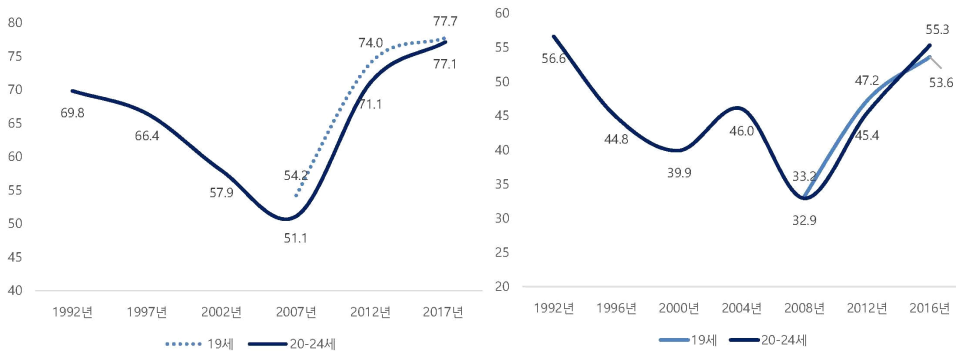
N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19세 및 20대 초반 청소년의 투표율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세의 2017년 대선 투표율(77.7%)은 20-40대 투표율을 넘어섰으며 총선 역시 20세 후반과 30대보다 높음.

〈대통령선거 19세, 20대 초반 투표율 추이(%), 1992-2017년〉 〈국회의원 선거 19세, 20대 초반 투표율 추이(%), 2013-2018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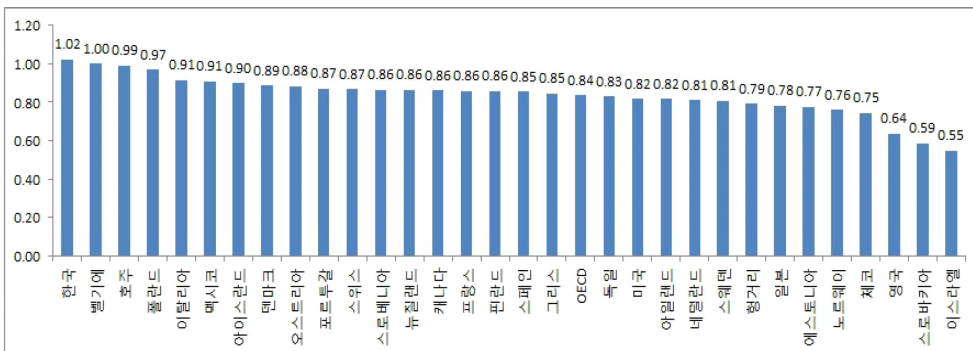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국제적으로 볼 때 18세부터 29세 청소년과 청년들의 투표율은 가장 높은 수준임.

OECD에서 각 국가별로 25세-50세와 비교해 본 결과, 투표율이 더 높은 국가는 한국과 벨기에 뿐이었음.

〈25-50세 대비 18-29세 투표 상대비 국제비교(2012/2013년)〉



자료: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Table 7.8. Young people tend to vote less. p.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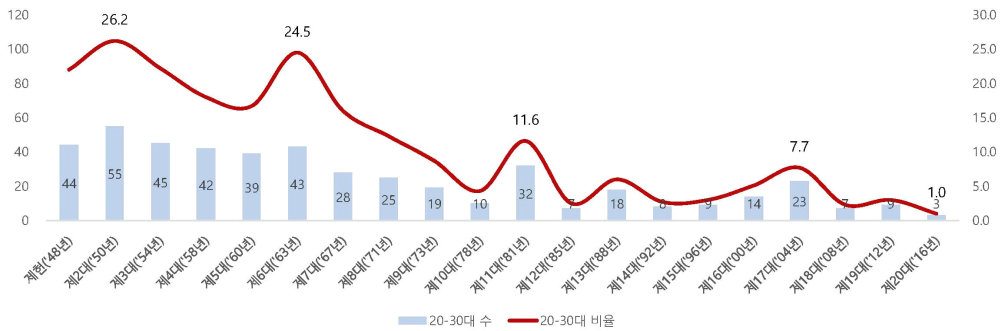
KIP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 역대 국회의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을 보면 최고 26.2%에서 1%로 추락

- 제14대 총선 이후 제17대 총선까지 젊은 국회의원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역대 국회의원 20-30대 당선인 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2012/2013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년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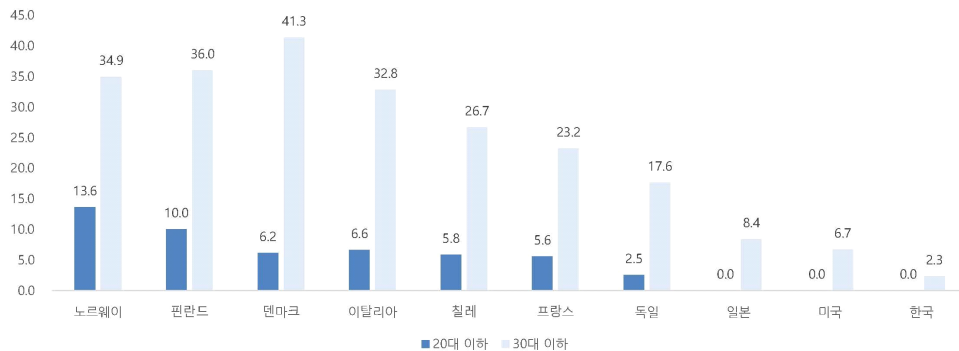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청소년 참여 실태 - 사회

- IPU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30대 국회의원 비율은 15.5%로 나타나 한국과 큰 격차 보여줌.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회의원 중 20-30대가 35% 이상으로 높았고 일본, 미국이 낮은 수준을 보여줌.

〈주요국가 단일 혹은 하원 국회의원 20대 이하, 30대 이하 비율(2018년 6월 2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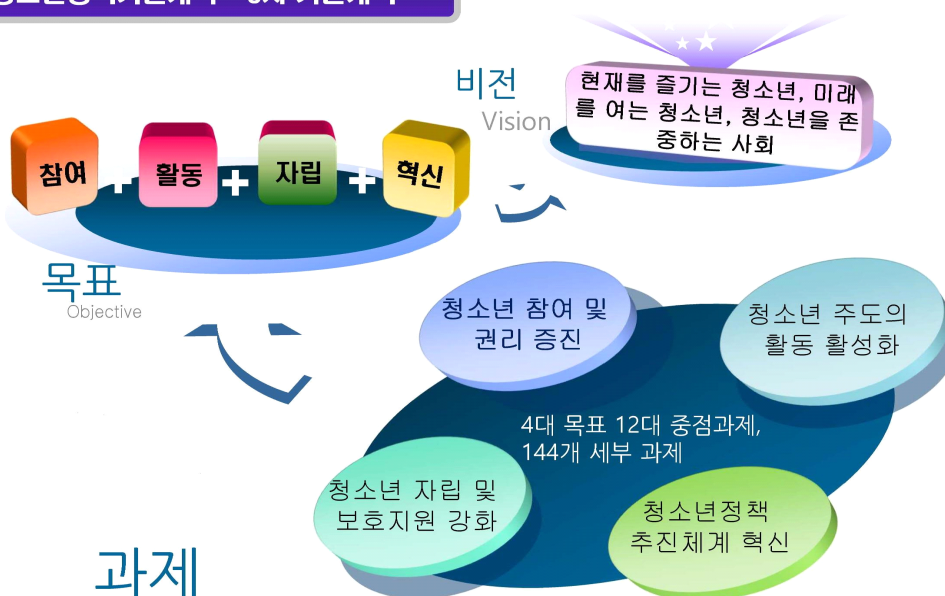
자료: Inter-Parliamentary Union(2018),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03. 청소년 참여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6차 기본계획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6차 기본계획

정책목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 제고
- 청소년 근로권인 침해 예방 및 보호
-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호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부처 시행계획

-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시행계획에서 참여 관련 사업은 69개, 예산은 991억 원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 대비 참여와 권리 증진 사업 비율은 24.5%였으며 청소년 참여 확대는 4.26%였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중 참여 및 권리 사업 현황(2019)〉

중점 과제	세부 과제수	전체 사업수	예산 (백만원)	전체 대비 사업비율
청소년 참여 확대	8	12	18,603	4.26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확대	17	36	51,750	12.8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5	21	20,749	7.45
참여 및 권리증진 전체	30	69	91,102	24.5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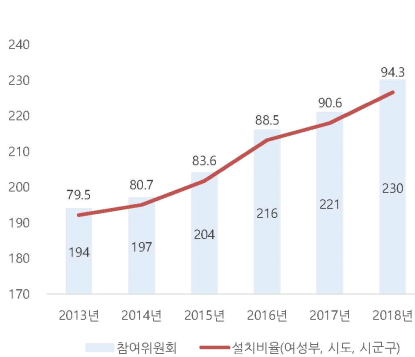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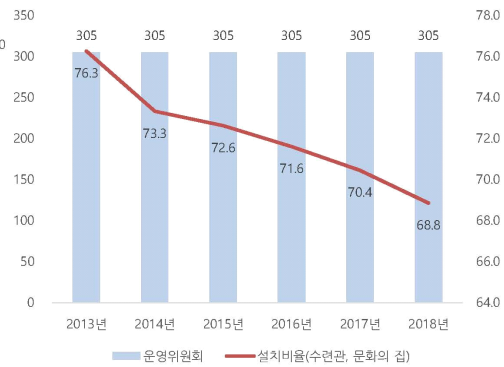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13년 194개에서 2018년 230개로 양적 확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포함 영향)

생활권 수련시설에 설치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2013년 이후 정체, 시설 수 증가로 설치비율 하락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 및 설치비율(2013-2018년)〉



〈청소년 운영위원회 수 및 설치비율(2013-2018년)〉



자료: 여성가족부, 각 시도, 청소년백서, 청창위 설치비율은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수로 청창위 수를 나눈 값임. 운영위 설치비율은 수련관, 문화의집 연도별 수로 운영위 수를 나눈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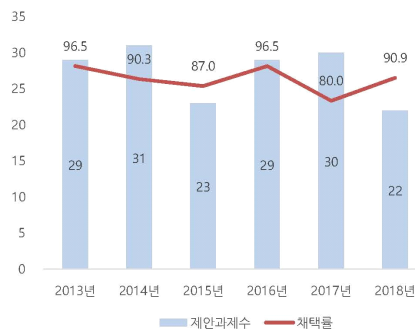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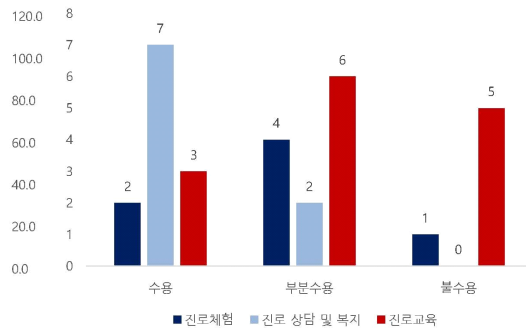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년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지역별 과제 발굴 후 정책과제를 건의 중

채택률은 90% 이상으로 높으나 부처 수용/부분수용 구분 필요, 채택 이상으로 추진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별회의 제안과제 수 및 채택률 추이(개, %, 2013-2018)〉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영역별 수용여부(개)〉



자료: 여성가족부, 각 시도, 청소년백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4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교육부

- 교육부의 20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학생 주도적 참여 활성화를 다루는 사업 내용 부족

-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시범적용 학교와 학교 공간 변경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추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교육부 시행계획 참여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내용〉

중점과제	사업내용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 초·중·고등학교법 개정하여 학생회 법제화 추진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민주적 리더십 집합 연수 추진 - 교사 민주적 리더십과 학생자치 지원 연수 추진 - 전국 단위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발굴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1종, 청렴, 준법교육) - 민주학교 189개교, 프로젝트형 민주시민교육수업 140개교 선정 및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도자료 추가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5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교육부

- ICCS 2016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정 상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음.

-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대만 등을 살펴보면, 개별교과목 수업 외에 모든 교과나 비교과에서 시민성 함양 추진

〈각 국가의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시민의식과 시민 역량을 교육(민주시민교육)하는 방식(ICCS 2016)〉

국가	개별 교과목	인문사회과목 일부	모든 교과목 포함	비교과
한국		◎		
노르웨이	◎	◎	◎	◎
독일	◎	◎	◎	
러시아	◎	◎		◎
대만	◎	◎	◎	◎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ICCS). 한국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 24개국 94,000 여명 대상 조사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6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당사자 주의 접근 필요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8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대상 중심 정책의 출발은 참여에서

대상 중심 정책

◦ 대상 중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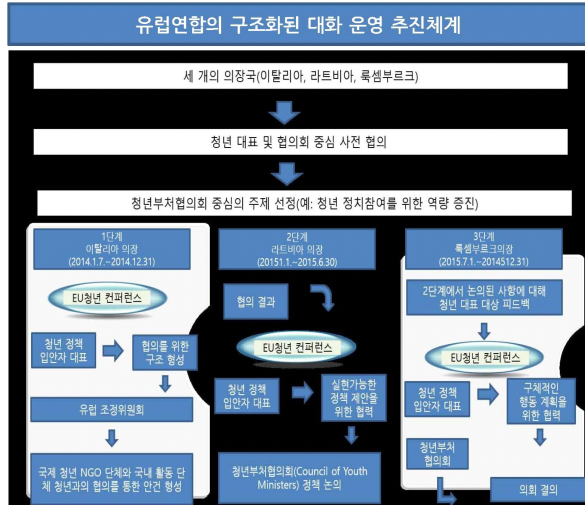
- 근대 이후 여성운동에서 출발
- 여성 이어 아동, 청소년 추진
- 노인, 장애인, 청년으로 확대

◦ 권리와 참여에서 출발

- 여성 참정권에서 출발
- 아동노동착취가 발단
- 청소년 발달권 보장에서

◦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 청소년 목소리 수렴
- 정당,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 청소년 참여 기구 강화



자료: 김기현, 이윤주, 최정원, 유선희(2018)

N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소수 대표성을 다수 참여로 보완



N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0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참여기구의 체계성과 대표성 강화

1

학교와 학교 밖 참여기구 연계 필요

2

구조화된 대화처럼 온라인을 활용해 많은 청소년들이 의사 개진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청와대 신문고 방식+정부 제안 정책 의견수렴+정책 제안 포괄

4

현행 청소년 참여 포털 with youth의 기능개편, 빅데이터 분석도 시행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의 온라인 매체 확장>



▶ 구조화된 대화는 청소년 및 청년층과 정책담당자들이 다양한 청소년 현안을 대상으로 논의하여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22개 언어로 제공되는 유럽젊은이포털 운영

(https://europa.eu/youth/EU_en)

▶ 토론주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대표회의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청소년포럼이 제안(예를 들어 청년 정책 사업 대상을 24세에서 30세로 확대)하며 각 회원국들의 청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참여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라도 포털 가입을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

▶ 15세에서 30세 젊은이 10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털에서 논의한 결과는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사업을 채택할 때 활용됨

자료: 김기현, 이윤주, 최정원, 유선휘(2018)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1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실질적 권한 부여 확대 필요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2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강화

1

청소년들의 단순 의사표현이 아니라 결정 권한 부여 필요

2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참여는 실질적 권한 부여의 출발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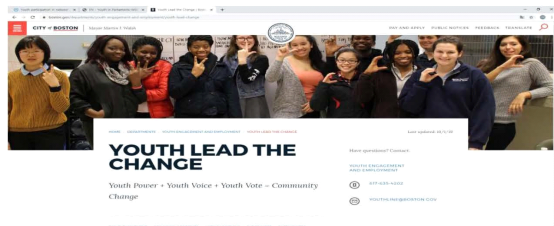
3

실질적 권한 부여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필요

4

보스턴시처럼 청소년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추진 확산 필요

보스턴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Youth lead the Change)



▶ 미국 보스턴 시 Youth Lead the Change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로 도입됨. 12세~25세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보스턴 시 예산 중 약 1백만 달러(약 11억원)를 이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함. 제안한 사업안들은 투표로 결정되며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업안을 시에 건의하고 시의회에서 최종승인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함.

자료: <https://www.boston.gov/departments/youth-engagement-and-employment/youth-lead-chan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3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참여 확대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4

04.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통한 참여 확대

1

여성가족부에서 다른 부처로 관련 중앙부처
참여위원회 추진

2

부처 및 지자체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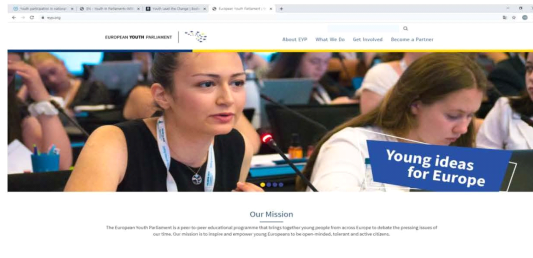
3

유럽 청소년의회처럼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청소년정책 논의 시 입법 제안 필요

4

민주시민교육적 차원에서도 의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아동의회와의 연계)

유럽의 청소년의회(EYP: European Youth Parliament)



▶ 유럽 국가의 청소년(18~25세)을 대상으로 의회 형태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40여개 국가로 구성되고 매년
600여개의 행사 운영 중이며 유럽 전역의 3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함. EYP는 민주시민교육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중임.

자료: <https://eyp.org/>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5

THANK YOU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포럼

-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방안 -

2019. 11. 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ONTENTS



01 청소년특별회의 운영현황

02 사업 문제점 및 환경변화

03 주요 변경사항 및 운영방향

청소년특별회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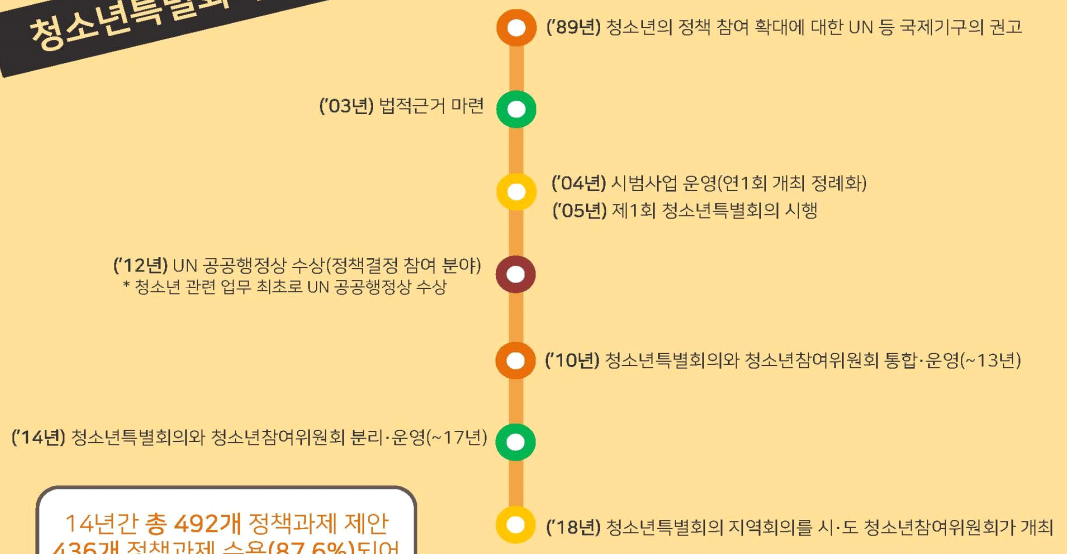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

* 청소년기본법(제12조) ① 국가는 법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인권, 참여, 복지, 진로, 안전, 역사 등
다양한 정책의제들로 매해 개최·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5월~)되었음

01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현황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경과



01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현황

2019년 추진체계도

2019 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기구 대표 회의체
· (구성) 중앙 및 시·도 참여위원 전원 위촉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 서포터즈

중앙 청소년참여위원회
· 범부처 정책 제안 과제 발굴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50명 내외
- (당연직) 시·도 대표위원 34명
- (위촉직) 소수 청소년, 청소년단체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16명 내외 선발

↑ 시·도 대표 위촉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광역 지자체 정책 제안

↑ 시·군·구 대표 위촉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기초 지자체 정책 제안

<청소년위원>
총 446명

<정책영역>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밖청소년

01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현황

2019년 정책제안 추진 과정

구성(3~4월)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직 선발 및 구성
(총 446명)

**정책영역 선정
(5월)**
온라인 투표 실시 결과
총 5개 영역 선정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밖청소년)

**출범식 및
워크숍(5월)**
청소년 위원 위촉장 수여,
정책과제 발굴 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회의 등

**정책과제
선정투표
(10월)**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결 투표 진행
(특별회의 위원 446명)

**본회의
(9월)**
최종 정책과제 도출

**정책과제 발굴
(6~8월)**
- 정책 관련 자료 조사 등
- 정책과제 분류 및 세계화
작업(예비회의)

**부처협의
(10~11월)**
부처별 정책과제 수용여부
및 검토의견 확인

**결과보고회
(12월)**
최종 정책과제 정부부처
제안 및 연간 활동결과 보고

총 5개 분야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밖청소년)
28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01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현황

사업 문제점 및 환경변화

< 청소년 생활환경의 변화 >

-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및 온라인 매체활용·소통 역량이 급속도로 향상 되었음에도 선발된 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는 초기 방식 유지



<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의 활동 참여도 약화 >

- 청소년에게 경쟁력 있는 다양한 대외활동 및 참여활동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상이 약화됨

02 사업 문제점 및 환경변화

사업 문제점 및 환경변화

< 정책과제 발굴·모니터링 과정의 전문성 및 체계성 부족 >

- 위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정 부족으로 정책과제 발굴의 한계 및 의제 반복화, 제안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사회적 현안 이슈에 대한 논의·대응 부족 >

- 정해놓은 의제 중심의 정책발굴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소통 부족

02 사업 문제점 및 환경변화

주요 운영방향

-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온라인 정책제안 시스템 상시 운영)
- ☒ **누구나,**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원탁회의 개최)
- ☒ **청소년 감성**에 맞는(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03 주요 변경사항 및 운영방향

주요 변경사항

< 기 존 >

- 의제발굴방식
 - 선정된 영역 내에서 정책과제 발굴
 - 청소년 위원 간 오프라인 회의 방식
- 구성
 - 공개모집, 기관 추천을 통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
- 홍보
 - 특별회의 위원들간 정보 공유 중심
- (신규)

< 변 경 >

- 의제발굴방식
 -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의제 논의
 - 온라인 포털, 원탁회의 등 논의 창구 다양화
- 구성
 - 정책제안, 의제기획, 온라인소통 등 영역별 팀 구성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 홍보
 - 온라인 소통팀 별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홍보 활동 강화
 - SNS 등 채널 개설, 다양한 콘텐츠 양산하여 업로드
- 청소년특별회의 위상 강화 및 참여 활성화
 - 발굴된 과제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참여 청소년 인센티브 강화(우수 청소년 시상 등)

03 주요 변경사항 및 운영방향

2020년 운영방향

01



정책참여 소통 창구 확대 및 다양화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책 제안 가능
- 다양한 이슈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원탁회의 개최
 - 논의 주제에 관심있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개진 기회 제공

02



운영방식 재구조화

- 참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팀 체제 운영 및 교육기회 강화
 - 기존 정책제안 외 의제기획, 온라인소통 역할 추가 수행
- 전국 단위 공동 실천과제 활동 전개

03 주요 변경사항 및 운영방향

2020년 운영방향

03



정책제안·모니터링 및 홍보 전문성 강화

- 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가 상시 자문체제 구축
 - 청소년 참여 및 정책 관련 전문기관 연계
- SNS·영상 제작 활동 등에 관심있는 청소년 선발하여 온라인 소통팀 구성
 - 전문 기획단의 참여로 온라인 소통 전문성 강화
 -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홍보 활동 진행

04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상 강화 및 참여 활성화

- 정책제안과제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부처별 해당과제에 대한 수용성 강화
- 참여 청소년 인센티브 강화
 - 우수 활동 청소년 등 선정·시상하여 청소년 동기 부여
 -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청소년 부문 시상 시, 참여 부문 가점 부여 검토

03 주요 변경사항 및 운영방향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최 은 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하 태 호 상록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김 재 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담당

유 금 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이 동 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문

최 은 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향」 토론회

하 태 호 상록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1. 들어가는 말

오늘의 주제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구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향”은 현시대 청소년 계의 이슈로 관심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는 곧 청소년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청소년 사업의 재구조화를 외치고 있는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발제문에 대한 소견을 토론회에 담아보려 한다.

우선 발제문을 통해 청소년 참여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 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님과 청소년특별회의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계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용대 부장님께 감사드리며 그 발제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토론자의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의 현실

UN, EU 등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과제로 선언하고 헌장을 공포하는 등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과정 및 청소년시설의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실현하고자 청소년참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기구로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정부에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구 “청소년특별회의”, 동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시행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

소년수련시설 정책 및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주체적 참여를 주도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참여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개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개인의 역량개발과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공감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의회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발제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러한 청소년 참여정책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소년참여기구의 인지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교사, 지역사회에서의 성인들의 개입 없이 온전한 청소년참여를 이루고 있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3년 이후 정제되어 있으며 위원회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은 매년 동결인 상태로 청소년참여활동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이마저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의 현실 속에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청소년참여기구는 법적 권한과 충분한 자율성 및 자원을 갖지 못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이루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3.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참여가 확산되고,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수년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은 청소년참여기구 중 하나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인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년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수련시설종합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이고 이를 위해 담당자는 규격화되어 있는 참여활동을 하느라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형식을 따라가다 보니 실질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참여기구는 일반 동아리나 자원봉사단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 결국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곤 한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즉, 청소년이 단순 의사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하며 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 이사를 두어 기관 내 주요 의결과정에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제한적인 소수의 참여가 아닌 일반적인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에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으며 그 마저도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다면 청소년 참여를 경험하기엔 쉽지 않다. 참여의 사전적인 뜻은 끼어들어 관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관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적인 참여의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참여의 공간이 수련시설이나 특정 청소년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공간으로 확대된다면 제한적인 소수의 참여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내 참여기구를 기관의 참여기구 연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참여정책이 펼쳐진다면 소수의 청소년만을 위한 참여정책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포털(with youth)의 기능을 정책 제안 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유럽의 구조화된 대화처럼 토론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이 결과를 실제 정책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와의 허물없는 정책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세 번째, 체험형 일회성 참여가 아닌 실제적인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자로 청소년과 만나보니 대부분의 청소년은 청소년참여기구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청소년 참여의 역할도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여는 청소년참여기구 안에서만 참여를 체험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참여는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일상적인 참여와 참여기구와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청소년 참여와 일상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이 시혜적인 혜택이 아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참여의 주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면, 참여는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의 환원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합의된 결정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를 이끌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결과로 도출된 대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소년 참여 세미나 혹은 청소년 참여 박람회와 같은 오프라인 만남의 장은 물론 앞서 언급한 청소년 참여포털(with youth)의 역할과 정책담당자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만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계는 그러한 청소년 참여의 환경을 과연 제공하고 있는지 이번 토론을 통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저 만들어놓은 참여의 모델에 만족하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청소년 참여의 정의만을 내려놓고 청소년을 성인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토론자 본인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참여와 함께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었는데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가 일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청소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부디 이번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의 행복으로 이루어져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래본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김 재 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담당

1. 청소년 참여의 저변 확대

가. 참여를 위한 임파워먼트 필요

- 역량강화라는 국한된 의미에서 “힘과 권력을 나눠주는 것”까지로 확장시켜야 함.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동료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발적인 표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지원, 이 과정을 제도화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

나. 정부 주도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참정권 확대

-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는 튼튼한 토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 청소년 참정권은 ‘선언’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특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 만25세 미만의 청소년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임.
- 입법부를 통한 청소년 참여 확대에 있어서 유럽청소년의회 사례 관련하여 선거·피선거권이 보장된 유럽과 한국의 상황(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하는 맛보기 수준의 참여)에서는 차이가 있음.
-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만병의 근원을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참여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 것인가?’→기존 참여 단위 간 연결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 및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결이 필요.
-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운영 중인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필요(안양청소년정책학교, 성남청소년제안주간 등).

다. 부처 및 기관을 뛰어넘어 참여 활동에 대한 협력 운영 필요

- 용어가 갖는 배제성(한계), 주무부처 구분에 따라 학교, 학생의 참여 활동에 주목하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 참여 기구 ‘학생회’,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교내 사회참여 등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 있음.
- 특히 중앙정부(교육부) 차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17개 시도 광역교육청과 연계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2.) 및 2019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19.3.)을 수립하여 시행 중

- 2013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전담 하는 부서를 신설(명칭은 민주시민교육과 또는 민주시민교육팀 등)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참여와 실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학생사회참여동아리지원 사업, 사회참여대회 등)
- 대부분 교육과정 속에서 배운 사회문제를 자신의 생활에서 찾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공공정책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성 내용을 담고 있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및 프로젝트 시티즌 참고)

관련사례 지역청소년교육의회(경기도교육청) 만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역 내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 교육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회의 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 / 기존 학생의회에서 청소년의회로 확대하였으며 교육관련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의 이슈까지 포괄해서 주제 선정 후 활동, 정책제안

라.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필요

- 청소년의 참여 활동, 특히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가(청소년지도사)의 사회 참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필요

관련사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후 청소년 정책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교원직무연수 공동주최

교과목	세부내용	시수	강사
민주주의와 참여	☐ 민주주의 개념과 가치 이해 ☐ 민주주의 주요 가치(참여)의 의미와 내용 ☐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정(국내)	2	유성상(서울대학교)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일까?	☐ 민주시민교육 관련 생각 나눔 ☐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 대한 서클 운영	1	김선옥(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청소년사회참여 방향과 방법	☐ 청소년 사회참여의 의미 이해, 방향 공유 ☐ 청소년 사회참여 방법(정책제안) 이해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영상 시청 및 토론	2	김재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소년 사회참여 사례 공유	☐ 청소년 사회참여 현황 공유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사례 분석 ☐ 청소년 사회참여 세부 활동내용 공유	2	배성호(삼양초등학교) 이수연(송곡중학교) 장윤형(문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시민사회'와 만나다	☐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주요 의제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서울지역) 초청 사람책 도서관 운영(리빙라이브러리)	4	김소연(비정규노동자센터)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정민석(인권재단 사람) 이혜영(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박효경(녹색연합)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실습	☐ 모둠 구성, 문제인식 및 활동 계획서 작성 ☐ 활동 관련 양식 작성 및 공유 ☐ 참여활동 계획 지도안 작성 및 공유	4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창림, 서진, 최위환, 권지현, 손민정, 박은미 연구원

2. 정책참여 소통 창구 운영 관련

- 가. 청소년 정책과 관련 특성화된 정책 제안 창구 운영이 필요하고 덧붙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정책 제안 창구와 연계 운영 필요(청소년 및 관련 주요 제안이 연계되어 이관 및 통합될 수 있도록)
- 중앙부처: 청와대국민청원(청와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정부혁신국민포럼(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서울(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광주광역시), 두드리스(대구광역시), OK1번가 시민청원 와글와글(부산광역시), 경남1번가(경상남도) 등
- 나. 참여기구 위원(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이 청소년 대표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직접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참여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필요함(오프라인 의견수렴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여 청소년 의견 수렴 과정을 운영, 상시적 의견 수렴이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정책 수렴 주간 등 운영)

3. 운영방식의 재구조화 과정 추가

- 가.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팀 체제 운영 관련
- 실무의 주체가 되었을 때 활동의 여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참여 기구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고려 필요.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과정은 참여 기구 본연의 역할이자 더 나아가 민주주의 학습 과정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새로운 운영 팀의 구분은 기존의 낮은 참여율 등 고려했을 때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나. 연간 전국 단위 일원화된 실천 활동 전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통 주간 운영을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 등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참여기구 참여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 우선순위 분류, 현실적인 정책 제안 과정으로 연결시킬 필요

관련사례] 2019 활동가 이야기 주간(2019.11.4.~8.):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 생각과 경험, 변화 사례를 나누는 63개의 이야기모임이 해당 기간에 전국 곳곳에서 개최 / 더이음·아름다운재단·바띠·민주주의기술학교 공동주최

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임기 변경 고려(1년→2년)

- 실제 활동기간은 6개월~10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과정에서 정책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연장할 필요성 있음.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절반씩 나누어 격년으로 50% 선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

4. 정책제안 모니터링 및 홍보 전문성 강화

가. 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가 상시 자문체제 구축에 더해 제안 정책의 주제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관계부처와 사전 협조 체계 마련 필요

- 정책화를 위해서 일상의 언어가 정책의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 다수 존재함.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위해 전문가 자문체제에 더해 추가적으로 관계 부처 협조가 초기 단계부터 결합 필요

관련사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2018.8.9. 8차 열린소통포럼: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제안에 정부가 답합니다.): 청소년 정책 주무기관 부처의 정책 브리핑 진행, 제안 정책 관련 공무원 참석(법무부 보호정책과,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활동진흥과, 학교밖청소년정책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관련사례] 정부혁신국민포럼: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프로세스: 온라인(광화문1번가, 국민청원 및 정책제안) 및 오프라인(국민포럼 운영위원, 열린소통포럼 발굴 제안 등)을 통한 제안한 내용을 각 부처의 의견을 조화하고 공론화TF 구성 및 운영(포럼 운영위원, 전문가, 부처 담당자 참여)

5. 청소년특별회의 위상 강화 및 참여 활성화

- Q. 어떤 힘과 권력을 줄 수 있으며 가능할까? 현재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 상정에 덧붙여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들(별도의 추진 예산, 추진 주체 등)의 고려가 필요

청소년 주도의 참여기구 방향성 제언

유 금 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에 청소년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것이 1998년 10월 15일 선포된 개정 청소년헌장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헌장에 권리 못지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인권을 지닌 사회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함을 천명한 그로부터 2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청소년에게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에 반하여 청소년참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성장과 가정-학교-사회의 성숙은 낮은 기울기로 성장해왔다. 청소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상과 주변 환경 또한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정보의 부족을 이야기하게 만들며 참여활동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청소년 기관과 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도 다수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기관에 동원되고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위협과 참여기구의 정책참여활동이 가지는 파위를 이용해 청소년정책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기회에 기관과 시설, 그리고 관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오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자를 처음 맡았을 시기 즈음에,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었다. 주제발표 지향점과 완벽하게 정반대의 핑계와 오답노트를 적어봤었다.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질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할 만큼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역량이 갖춰질만큼 내가 지도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내용도 어렵고,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고, 뭘 지도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지도자 교육도 없었고, 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

이 완벽한 오답에 대한 현재의 답은 이렇다.

우리 청소년(참여위원)들은 참 바쁘다. 참여활동도 하지만 다른 활동/일과가 많을 확률이 무척 높아 서로간 일정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기간도 피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시험기간이 다 제각각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해줘야 한다.

참여활동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다.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 차려준 밥상보다 밥상 준비부터 정리까지 지도자가 함께 해줘야 한다. 밥은 타도 누룽지가 되고, 반찬이 적어도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꼭 12첩반상일 필요는 없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세종의 경우는 9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이 열려있다. 9살과 24살, 무려 15년의 시간을 넘어 스스로 없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들만의 문화창조를 위해 담당자는 별짓을 다 해야 한다. 그중의 가장 큰 별짓은 서로에게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시키면서 너그럽고 위풍당당하게 술선수범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잘 안 되는게 담당자더라.

그리고 참여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되,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하드캐리함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기관/시설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은 담당자보단 중간관리자 정도의 경험치가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오답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국가, 지역사회, 시설, 시민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다.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랬기에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부터 현재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까지 첫 번째 추진과제가 항상 청소년참여와 권리증진을 배치해왔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책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의 핵심가치인 변화를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이 변화를 가져오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 오늘 두 주제발표가 가지는 공통적 지향점과 같은 보다 청소년 중심으로, 다수의 참여를 위한 기회의 확대와 실질적 권한의 부여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토대로 참여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 창조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하며, 시민들과 소통-공감하며 매순간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전환점들이 특정의 참여기구에서 일상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내 삶을 지키는" 참여 활동으로 개편해야

이 동 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前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 배경

- 청소년 참여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그러나 청소년 참여활동의 수준(질적 측면)이 2000년대보다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0년대가 자발적 의지가 있는 소수의 청소년·관계자들에 의해 청소년 참여활동이 이루어졌다면, 2010년대는 정부의 지원,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운영 방식이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그에 상응하게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문제 및 진단

1) 일상과 괴리된 민주시민 교육으로 인한 참여활동 의욕 저하

- 여전히 청소년 참여활동의 상당수가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음. 청소년 축제·참여기구 등이 일상과 괴리된 ‘방과 후 수업’, ‘여가’와 같은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통일·세계시민 같이 일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념적·추상적 의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작 학교 내 차별과 폭력,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에서의 갑질과 같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여활동(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효용성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나의 일상권리를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은 참여활동 의욕 저하로 이어지게 됨

2) 참여기구 양적 확대에 대한 집착

-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참여기구를 확대하고 관련 조례들을 입안한 것은 대외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큼. 기계적 참여 확대가 형식적 운영을 낳는 측면이 없지 않음

-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다보니 인원 모집 및 운영이 주가 되고 정작 청소년 의견수렴·정책제안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 이른바 ‘대외실적용’ 참여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ex) 서울의 모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는 5년 째 운영되고 있지만 제안받은 정책에 대한 피드백 또는 반영이 사실상 전무했음.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실정임

3) 참여기구 활동이 운영기관 담당자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음

- 참여기구들이 규격화된 매뉴얼이 없이 참여기구 운영 맡은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어떤 사람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개별 단위 참여기구 운영이 파편화되어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수 사례가 있다면 공유하고 타 기관에서도 적용해야 하지만 이들 간의 노하우 공유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4) 최소한의 가이드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최소한의 가이드조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스펙 또는 봉사시간은 채워야 하니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음
- 마지못해 참여활동에 임하다보니 청소년 본인들도 평소에 관심 없는 ‘청소년 문화거리 지정’,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같은 정책들을 대충 마련하여 제안하고 연간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음

◎ 해결방안

1) 생활밀착형 참여활동·교육 확대

-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의 효용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 일상생활에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노동권리 침해,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 등)

2)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함. 성과는 양보다 질로 측정되어야 함. 현재는 참여기구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다가 성과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지만 어떤

활동을 했고 청소년들의 권리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등 질적 측면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지역별 다르게 접근해야 함. 양적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양적 확대를 우선 도모해야 할 것이고, 양적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은 질적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참여활동 성과에 대해 고민할 때, 청소년 중 적극적 의지가 있는 그룹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을 분리해야 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에는 상위 활동으로의 연계 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며, 수동적 참여 그룹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더라도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마련되어야 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청소년이라는 범주에 국한하지 않아야 함

- 현재의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이라는 범주를 설정해놓고 여기에 국한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외형상 권한을 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어린들이 만들어 준 경기장'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움
ex: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 청소년 활동의 목적은 이 활동들을 하며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권리 침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활동은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제안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변화해야 함
- 선거법 개정 역시 병행 되어야 함.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정작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선거법상으로 막고 있는 것은 모순임. 비단 선거연령 인하만이 아니라 이들이 선거에도 참여하고 실제 정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활동은 없음

4) 실무자 교류·교육 확대

- 참여기구 활동 노하우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류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의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할 필요가 있음

MEMO

MEMO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인 쇄 2019년 11월 16일

발 행 2019년 11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